선택 4·11

■ 총선 후 정국 시나리오

여소야대땐 대선 정국 조기 부상

여대야소 되면 민주 지도부 책임론 직면

선거 결과 따라 대권주자들 희비 쌍곡선

4·11· 총선 결과는 국회의 권력 구도 변화와 대선 주자들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지형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이 1당을 차지하더라도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국은 12년만에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단독 과반은 못하더라도 140석 안팎을 확보해 1당이 되고 통합진보당이 10~15석을 차지한다면 야권은 무난히 과반을 이뤄내 대선가도의 정국 주도권을 움켜쥘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심화시키고 대선 정국이 조기에 부상할 수 있다.

여소야대가 현실화 된다면 야권은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적 과제들에 대한 수정 내지 폐기를 위한 압박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야권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문회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비롯한 각종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의 대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 장기 표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의 위상 변화도 주목된다. 독자적 원내교섭단체에는 실패하더라도 15석 가까이로 원내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 어느 누구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다면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는 물론 대선을 앞둔 정국 흐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된다. 선거를 진두지휘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당만 지켜낸다면 선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권 내부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

또한, 여권의 승리 기준점은 탄핵 역풍이 불었던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121석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121석 이하의 성적을 거둔다면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역학구도는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당의 지위를 얻는데 실패한다면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야권 지도부는 책임론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부상한다면 당내 주류세력인 친노 그룹의 힘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에게는 '낙동강 벨트'의 성적이 중요하다. 부산에서 3석 이상, 나아가 4~5석을 배출하면 '문재인 바람'이 확인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상당한 입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젊은 층의 총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강연 정치 활동을 보였지면 사실상 이번 선거전을 관망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은 당분간 정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 이후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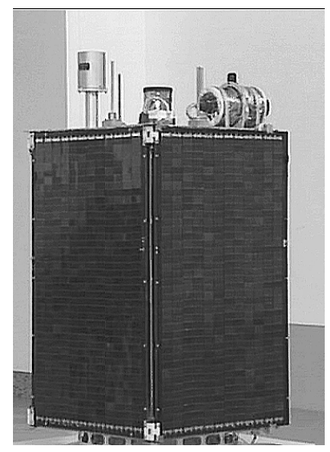
한편, 수도권 민심의 향배도 관심사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대선가도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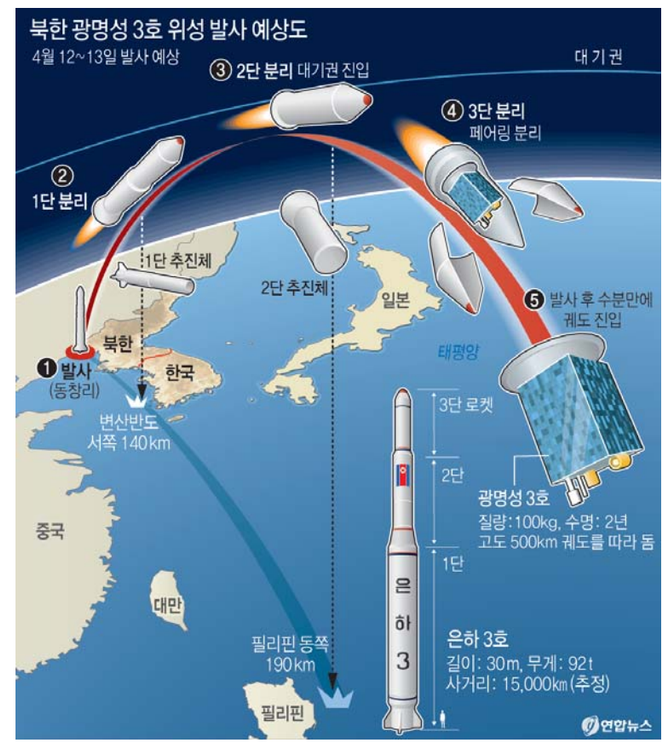
北 "로켓 발사 모든 준비 완료됐다"

美유엔대사 "안보리 소집"

백악관 "도발 행위 간주"



북한이 공개한 '광명성 3호 위성'의 모습.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은 10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위한 모든 조립과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광명성 3호 발사를 담당하는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류금철 부소장은 이날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성 3호가 미사일 실험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는 서방의 시각을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부소장은 예정대로 12~16일 사이에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광명성 3호는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평화적 위성이며, 위성을 실은 1,2단계 추진 로켓은 예정된 궤도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단 로켓이 필리핀 육지로부터 160㎞, 2단 로켓은 190㎞ 거리에 있는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며 "탄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로켓은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전 라이스 유엔(UN) 주재 미국 대사는 9일(현지시각) CNN방송에 출연,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도발행위(provocative action)'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도 도발행위"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원내 1당 '140석 싸움'

여야 모두 과반 달성 어려워… 광주 서구을 관심

■ 총선 승패기준은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4·11 총선을 '140석'의 싸움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140석에 근접한 정당이 원내 1당으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어느 쪽도 단독으로는 과반인 150석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숱한 잡음과 말썽을 일으키면서 이 같은 전망치는 의미가 없어졌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21석이 패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121석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탄핵역풍을 뚫고 얻은 의석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하는 '패배'로 여겨질 수 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이 목표다. 따라서 새누리당보다 5~10석 많은 135~140석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당이 못되고 통합진보당 의석수와 합쳐서도 과반인 150석을 못 넘긴다면 참패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텃밭 수성 여부도 승패 기준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안방격인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친노(親盧) 바람'을 일으키며 두자릿수 의석을 달성할 지가 주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5석 정도를 승패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재인·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5석에 미치지 못한다면 '노풍'이 찻잔 속에 태풍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및 야권연대 후보의 낙선 규모가 민주당의 승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 순천·곡성, 나주·화순 등에서 무소속·새누리당·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패배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구을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는 민주당 호남 승패의 1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 또 계란 피습

서울서 … 피해 없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0일 또 다시 계란 공격을 받았다. 지난 9일 충남 서산 지원유세 현장에서 취객 이모(62)씨로부터 계란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후문에서 천정배 후보 지원유세를 마친 뒤 다음 유세장소로 가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이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한 대표 쪽으로 계란이 날아왔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그러나 계란은 한 대표에게 미치지 못하고 2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깨졌다고 한다. 한 대표는 다음 일정을 위해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靑 '수원 여성 피살사건' 막판 악재될까 곤혹

청와대가 4·11 총선 직전에 터진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 등 총체적 치안 부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수리 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0일 "20대 여성이 납치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살려내지 못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터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여야간 초박빙 승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만큼 막판 돌출 변수가 팽팽한 균형추를 무너뜨릴 개연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서울 노원갑)의 '저질·막말' 발언이 서울 동북부를 중심으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이 이를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판세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제1당에서 밀려나는 것을 넘어 야당에 과반을 내 줄 경우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국회 관계나 여권의 차기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초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돈다발 전달 의혹과 같은 불리한 여건에서 고전했던 만큼 과반 차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강하다. /연합뉴스

특허청 특허등록 : 3개최우수기업으로선정된법원경매정보대한민국대표사이트!

『법원경매』의 길잡이 다와옥션이 함께하는!

검색 다와옥션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세요! www.dawaauction.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근린상가
· 북구 용두동 근린상가 5층중 2층상가 46평 감정가 2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공장및근린주택
· 남구 백운동 4층근린주택 1층점포 2~4층다가구 대지95평 건평190평 감정가5억2천만 최저가3억6천만
· 동구 산수동 4층근린상가 대지79평 건평185평 감정가 4억4천만 최저가 3억5천만
단독주택
· 남구 백운동 상업지역내 2층주택 대지85평 건물73평 정가2억5천만 최저가1억7천만
전원주택부지
· 봉산면 대추리 관리지역 대지622평 감정가 1억3천 최저가8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광산구 대산동 관리지역 전망좋음 차량진입가능 현 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능) 매매 8천만
·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증도대교앞 생산관리 답7500평 매매 1억7천만(조정가능)

☎ 문의062-268-8949 (010-4911-4989)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 저녁 : 7시 (3개월, 14주,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 실전투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 10시(임장시 오후까지) (3개월, 14주, 50만원)
☞강사 : 안 성욱 교수(저자직강)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1588-6115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효성공인중개사
공장·창고 전문

공 장 임 대
① 250평 : 전기 300㎾ (하남) 호이스트5t 보증금5,000만 / 월450만(분할가)
② 120평 : 전기 100㎾ (평동) 호이스트3t(신축) 대로코너. 보2,000만 / 월220만
③ 100평 : 대로변코너. 신축(본촌공단) 보3,000만 / 월230만

★ 물류창고 ★
① 293평 : 하남공단 보5천만/월450만
② 100평 : 본촌공단 보2천/월220만(신축)

★ 공장매매 ★
① 본촌공단 : 대923/건500평 호이스트3t 매매가13억5천만(최근건물)

★ 물류창고 부지매매(급매) ★
★ 어린이집 요양원 부지 ★
① 양산동 25m대로변. 200,300평당 160만
② 신안동 10m대로변. 280평 190만

T. 062) 521-6024 H. 011-602-4207 F. 521-6026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연제동,본촌동,신용동,용전동 일대부동산전문
첨단2지구상가,단독물량다량확보

상가및근린시설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자이옆코너 대지: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3000세대.용두인근3000세대상권 체인음식점.병원,교회등적합 평당:300만

양산택지지구토지매매
본촌동원룸부지 300여평 평당:160만
연제동아파트정문앞도로변 상가지150평당:250만
본촌동아파트,중학교앞도로변:100평당:280만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양산초주변주택지37평:6500만(주택멸)
양산동,양산동성당주변택지51평. 평당:110만

광주외곽인근
용전동 도로삼각코너변:1300평 평당:130만
용강동자연녹지 답:900평 평당:13만

시외매도물건
장성군 북이면 임야:13.500평 평당: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약700평 평당:50만
신용동생산녹지지역:900평 평당:40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50번지
T.062)572-8500 FAX:572-0732
휴대폰 011-629-8500, 010-3613-7397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주요취급업무 : 중심상업용지, 상가/주택 주차장용지, 혁신도시주변토지 등

사실분, 파실분의 방문상담을 환영 합니다.

나주혁신도시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061)333-7077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619-3651
전남나주시산포면 매성리354-32(위치: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융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융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종 주거지역 토지구함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